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군민펀드 조성 착수

군민펀드조례 입법예고...군민 직접투자 수익 지역 환원
군 100% 출자 주식회사 설립...개발이익의 외부유출 방지

해남군이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의 첫 걸음으로 군민펀드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주식회사 설립에 착수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는 군민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에 직접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군민펀드 참여자격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군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 또는 협동조합으로, 투자자의 지역 제한과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펀드'로 운영된다. 적용대상 사업은 설비용량 10MW 이

상 또는 총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업의 수익 구조 및 위험요소가 명확한 사업이어야 한다.

군은 조례 제정 후 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금융기관 공모 절차 등을 거쳐 군민 투자자를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사업을 전문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식회사 설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식회사는 해남군 100% 출자기관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군과 군민 참여를 확대해 수익을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지난해 설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화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도 추진 중으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이익공유의 대전을 이뤘다고 있다.

산이면·마산면 일원 국가 관리 간척지에서 주민참여형으로 400MW급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중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산업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에 공동 공급될 예정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군에서는 100개소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의 에너지 이익 공유는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의 심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미래비전에 발맞춰 전 군민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민참여에 따른 수익 배분은 물론, 지역기금 조성, 생활 SOC 확충, 농업·영농 소득 증대 등 지역과 주민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상생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LS그룹의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 구축 사업, 한전KDN의 에너지특화AI데이터센터 조성 등이 확정되고, 지산지소 에너지 대전환의 계기가 될 RE100국가산단과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해남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이 되고, 전체 해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의 가장 소중한 자원의 에너지를 공공이 개발하고, 군민의 소득으로 되돌리기 위한 큰 구상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AI·에너지수도의 핵심 거점 해남에서 모든 군민이 에너지 소득의 혜택을 누리는 해남형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솔라시도 기업도시 재생에너지산업단지

신안 어장 개발...청년 어업인 양식장 제공

청년·귀어인 양식산업 정착
군, 4자 협력체계 지원 구축

신안군은 최근 군청에서 유류수변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청년·귀어인·신안해양과학교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양식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안군 청년 어업인 양식산업 정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신안해양과학교등학교장,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장, ㈜신안천사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김이 K-컬처를 이끄는 K-푸드의 핵심 품목으로 주목받으며 김 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김 양식 환경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유류수변을 활용한 신규 해조류 양식 면적을 확보하고, 기존 양식어업인과 더



신안군은 최근 유류수변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청년·귀어인·신안해양과학교등학교 졸업자의 양식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안군 청년 어업인 양식산업 정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어 청년·귀어인들의 양식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2026년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신규 해조류 양식 수면 760ha (여의도의 약 2.6배) 확보,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기존 어업인과 연계한 멘토링·양식

기술 전수, 신해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 중심 실습·교육 강화, 초기 정착 단계의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계약수매 추진·안정적 판로 확보 등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존 어업인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김 양식산업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영암몰’ 가입자 80만까지 늘린다

군, 남도장터와 연합시스템 협약...마케팅 강화

영암군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처 '영암몰' 가입자를 올해 1월 현재 3만명에서 80만명 수준으로 크게 늘릴 기회가 열렸다.

8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남도장터, 고흥·원도군과 '남도장터·시군물 연합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영암몰 등 3개 군의 온라인 농특

산물 판매장의 주문·결제·정산·회원관리 등 핵심 기능을 전남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장 '남도장터'의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암몰 등 지역 브랜드와 운영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관리 시스템만 통합하는 방식이어서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마케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협약에 따른 연합시스템으로 영암몰 가입자들은 더 안전하고 강화된 보안 체계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암군과 영암몰 입점업체는 남도장터 가입자 80만명에게 농특산품을 홍보할 길이 열렸다. 남도장터 가입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영암몰 가입자로도 등록될 수 있어서다.

영암군은 협약을 기회 삼아 '개인 동의 이벤트', '추가 포인트 적립', '3개 군 공동 특판'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영암몰 가입자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강진, 상반기 평생학습 정규과정 개강

39개 강좌 구성...생활밀착형 학습 수요 대응

강진군은 '2026년 상반기 평생학습 정규과정'을 순차적으로 개강하고 본격적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상반기 정규과정은 군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해 건강·취미, 직업 능력 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실생

활에 도움이 되는 총 39개 강좌로 구성됐으며, 약 40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실용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

습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자기계발은 물론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생활권 기반의 평생 학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규과정은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민 참여를 높여 지역 내 학습 공동체 형성을 유도한다. 다만 평생학습센터까지 이동이 쉽지 않은 면 지역 주민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찾아가는 배달강좌'도 함께 추진한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